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중독되다

연출 : 은지향
진행 : 정찬우, 김태균
방송 : SBS 파워FM 107.7MHz, 오후 2시~4시



당신은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 중독됐다. 오후 2시에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와 업무에 열중해야 하는 시간인데, 따스한 봄바람에 졸음이 밀려오고 나도 모르게 오늘도 그들을 찾는다. 컴퓨터 바탕화면의 '고릴라' 군의 얼굴을 보며 흐뭇해지는 이유는 뭘까.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이어폰을 낀고 고릴라의 얼굴에 살포시 마우스를 올리며 클릭한다.

고릴라를 보며 정찬우의 얼굴이 떠오르고, 김태균의 옥희 목소리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이 증상은 뭐지? 아마도 이것은 '컬투쇼 중독'이다. 두 남자의 유쾌한 목소리와 재치 넘치는 입담은 청취자의 즐거움을 넘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컬투쇼 두 시간 동안 세상의 온갖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으며, 일상에서의 자유를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두 남자는 청취자에게 자유시간을 선물한다.

컬투쇼는 연출에 은지향, 개그맨 콤비 컬투 정찬우 김태균이 DJ로 활약하는 국내 최초의 라디오 공개 쇼프로그램이다. '미친상담쇼', '사랑의 고스트', '사연 진품 명품', '특선 라이브',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등 다양한 코너를 구성하여 청취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특히, '사연 진품명품'은 사연의 재미에 따라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감정을 하는 코너로 컬투쇼의 최장수 코너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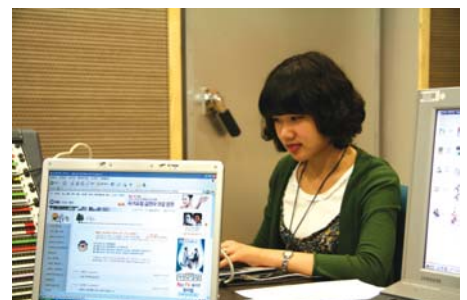
거기에 청취자와 함께 하는 친근한 형식의 진행으로 청취자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음악FM 청취율 1위 프로그램으로 뽑히는 기쁨도 얻었다. 이 기쁨을 몰아 은지향 PD는 지난 3월 6일 '제21회 한국PD대상'에서 쇼라디오음악·오락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은지향 PD]



[박광원 엔지니어]



[문지연 작가]



SBS 라디오 스튜디오(지하)를 찾아갔던 이날은 가수들이 직접 나와 노래를 들려주는 '특선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코너는 신인에서 유명 가수까지 출연해 청취자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근황토크와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주는 시간이다. 이날은 새신랑이 된 유리상자의 이세준, 한참 열애 중인 화요비, 신인 남성 듀엣 M.A.C(엠에이씨)가 게스트로 초대됐다. 컬투의 짓궂은 질문과 윗트 넘치는 진행으로 현장 분위기는 금방 급상승한다. 그 때의 수다와 노래는 다시듣기와 다시보기로 공유하고, 우리는 정찬우, 김태균의 '커다란 얼굴'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결혼식 축하를 불러만 주던 유리상자의 이세준이 새신랑이 되어 돌아왔다. 라이브로 열창한 '전화데이트'는 결혼 전에 아내와 데이트하던 추억을 담아 제작한 노래로 결혼생활의 행복감이 음악에서 물씬 풍겨져 나온다. 노래 중간에는 아내의 내레이션을 넣어 달살스런 신혼생활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화데이트는 이세준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프랑스의 여가수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의 "Mon Manège A Moi(나의 회전목마)"를 샘플링하여 만들었다. 요즘 휴대전화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연인들에게 딱 좋은 곡이다.

화요비는 밝은 스킨룩으로 3월의 봄내음을 스튜디오로 옮겨 왔다. 살포시 피어나는 봄날의 꽃망울처럼 '언터처블 슬리피'와의 사랑을 수줍게 이야기했다. 어쩔 줄 몰라라 하며 "저 그냥 노래할래요"하며 마이크를 잡는 모습에 청취자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화요비의 매력은 조금 느리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이야기 하고, 노래는 마음을 담아 열창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M.A.C(김현중, 구인회)는 MC몽, 하하의 피쳐링, 위대한 캐츠비 음반작업 등 이미 많은 활동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디지털 싱글 'Melody'는 멋진 두남자의 보이스가 조화를 이루는 감미로운 발라드 곡이다. 노래를 들은 후 스튜디오의 여성 청취자들의 뜨거운 환호가 쏟아졌다. 여기에 보태어 구인회는 '옥희가 부르는 자두의 김밥'과 '오광록' 성대모사로 분위기를 띄웠다.



웃고 떠들며 즐기는 사이에 청취자와 제작자 모두에게 행복함을 선사하며 방송이 끝났다. 은지향 PD도 웃는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 몇 번의 심의지적도 있었지만, 그녀는 청취자가 원하고,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알고 있는 듯 보인다. 자유로움을 간직하고, 4월의 봄바람처럼 청취자의 마음을 일렁이며, 꾸준히 사랑받는 컬투쇼가 되기를 기대한다.

